

설교제목 : 열국의 심판 (2) [아모스 강해 3강]

설교본문 : 아모스 2:4-8

설교날짜 : 2020. 10. 18 [주일 2부 예배]

서론

지난주 2장 3절까지 '열국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왜 열국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느냐? 그것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은 죽으면 모두가 다 하나님을 한 번은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과 믿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하늘과 땅만큼 삶이 틀립니다. 그러니 이 땅에 사는 목적 자체가 그분을 만나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세상적 경향성입니다. 그런 경향성이 들어오면 자꾸만 이 땅에서 무엇을 만들려고 합니다.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는 것이 자기 삶의 목표인 줄 압니다. 이 땅에서 사는 것은 사니까 사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 그분을 만나는 것이 인생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얼마나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삶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얼마나 거룩하게 사느냐? 백 년을 오래 살아도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만나서도 하나님과 별로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나 짧은 세월을 살아도 하나님으로 산 사람들은 그분과 영광으로 해후할 것입니다.

그것이 열국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한 핵심이었고, 우리가 기도 때도 말했지만, 이 땅에 그런 조상들로부터 온 모든 심판의 악한 성품들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보혈이 없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죄는 계속 자손, 자손, 자손, 자손 끊임없이 자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보혈을 믿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런 두려움은 없지만, 보혈을 믿지 못하면 그 저주가 자손 대대로 내려갑니다. 이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그마치 4천 년을 조상의 음란이 전이됩니다. 우리 주님이 주신 보혈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민족, 사회, 개인이 지은 죄는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싸이고 싸인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싸이느냐? 주님 만날 때까지... 혹은, 보혈로 해결될 때까지... 그러니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보혈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고통이 다 죄에서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해결할 길을 열어놓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의를 덧입고 주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국의 심판의 일곱 번째 나라인데, 4-5절은 '유다의 심판'이고, 6-16절까지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입니다. 유다의 심판을 먼저 볼 것인데, 북이스라엘이 이 아모스의 설교를 들을 때 유다가 일곱 번째 심판받을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이제 "이 심판으로부터 자유롭구나!"라고 착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할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북이스

라엘의 착각입니다. 자신들의 그런 갈등으로 인해서 남과 북쪽이 분열되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북쪽과 남쪽을 하나의 나라로 보신 것입니다. 자신들만이 분열하고 있는 것뿐이지 여전히 하나이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남북으로 갈려 있지만 이 한반도는 한 나라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단군 조선으로부터 흘러들어온 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사에 의하면 '우리 민족은 없어진 단 지파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무 그 설화에 고무되지 마세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 한반도는 이상하게 이방인측의 제사장 나라인 것이 분명합니다. "역사적인 증거를 대라?" 그러면 저도 별로 그렇게 학적인 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할 것은 없지만, 그러나 분명히 이 한반도를 기도해 보면 그 모든 하나님의 관심의 영적 흐름들이 몇천 년 동안 계속 흘러왔다는 것입니다. 그것 왜 그런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민족이 성품적으로 착하다거나 선하다, 이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악하죠. 지독하죠. 아주 세상적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택하셨는지 그것은 저도 모릅니다. 제가 목사된 것과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제가 왜 목사 되었는지 모릅니다. 저기 뒤에 있는 OO 목사처럼 착하고 공부 잘하고 이런 사람, 물론 저 사람도 목사지만, 저런 사람이 목사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저렇게 훌륭한 부교역자들이 있다는 것이 감사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나라로 보시는데, 북이스라엘은 벌써 그들의 마음이 남 유다와 갈라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더 나아가서 북이스라엘이 열국의 심판을 들을 때 그 말씀들을 정확히 받아들였다면 그런 모든 죄들이 자신들의 죄라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그 죄를 옆에 있는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을 통해서 자기 죄를 볼 수 있는 것이 겸손함입니다. 사실 북이스라엘이나 남 유다나 다 그런 겸손이 없었기 때문에 심판당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심판당했을 때 아모스서를 남 유다가 기억했다면 BC 586년에 절대로 멸망 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똑같은 의미에서 북쪽 이스라엘도 그런 아모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방인들의 그런 죄들을 자신들 것들로 봤다면 아마 멸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무엇이든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 것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혜 못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나? "저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돼! 그 웬수가 들어야 되는데." 벌써 은혜 못 받는 성도들의 특징입니다. 자기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사실 열국이 심판당하는 것은 남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공히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이방인들은 세상으로 살면서 자신이 선택한 죄로 심판을 받는데 그런데 그렇게 심판받는 이유는 자신들이 하나님이 제시한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용서는 누가 제공하느냐? 이스라엘이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보면, 이스라엘을 제사장적인 나라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빛의 역할을 통해서 이방에 있는 나라들이 그 어둠들을 보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그 빛의 제사장적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방인들은 그들의 악만을 계속 싸여지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계치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굉장히 이스라엘의 측면에서 본다면 무거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세상의 경향성 속에서 선택된 악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심판을 당하는데, 그것은 열국의 심판과 같은 기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이스라엘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책임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된다는 것은 사실 맨정신으로 될 일은 아닙니다. 그 이스라엘이 뭔가를 정확히 알았다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아, 하나님, 우리가 언약받은 선민이다.” 이렇게 소리치지 못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게 지독하게 고통스럽고 처절하게 깨진 민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이 제사장적인 책임을 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의 영광과 존귀를 누렸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교회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영광으로 세우신 곳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 빛의 역할을 감당 못할 때 반드시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만큼 교회가 이천 년 역사 가운데 우스운꼴을 당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어진 빛의 사명을 감당 못한 결과인 것입니다. 열방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열방 교회는 진리, 계시, 이것 가졌다고 그냥 자부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평생에 아모스라는 설교를 도대체 들어 본적도 없습니다. 그러니 그러한 한 번도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감격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들은 책임을 우리는 져야 합니다. 엄밀히 따져서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Gospel이라는 것 자체가 good new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게 생명을 주는 좋은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에는 또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억지로 해야 된다, 이런 책임이 아니라 생명을 받은 감격 때문에 그 생명을 전할 수밖에 없는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 열방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그런 생명을 받은 감격 속에 있는 것인지, 그런 생명에 대한 책임을 지금도 지고 있는지, 글썄요. 각자마다 경우가 틀릴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복음을 받고 나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바울의 신들메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평신도 때도 설교한 사람입니다. 제가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저에게 주어진 어떤 사명이라는 이름 때문이 아니라, 그것은 다분히 복음의 부담감입니다. 제가 주일마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 것도 그 복음의 부담감이 저로 하여금 설교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지만, 아모스가 이렇게 자신이 신랄하게 죄악들을 들춰내고 북 이스라엘을 난도질할 하는 이유는 사실 그런 일로 인해서 자신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것 장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그것은 자기 입에 하나님의 말씀을 둔 그 부담감이 그렇게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담감이라는 것이 세상적인 어떤 관심사에서는 별로 좋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부담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생명, 그 권위로 나를 강요하는 힘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누구에게나 이런 부담감이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그 말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Favorable or unfavorable,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책임감을 회피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그 책임에 대한 심판까지 더해지는 것입니다.

오늘도 아모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은혜 중의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정확히 받아들였다면 오늘도 그 생명의 감격은 여러분 안에 넘칠 것이고 그리고 그 감격의 기쁨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것이 삶으로 연결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의 문제는 분명히 뭔가 좋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심도 굉장히 큼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움직이고 있느냐? 그건 좀 많은 사람이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전체로 본다면 사실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우리 열방 교회를 개척한 이래로 “전도해라” 이런 말은 정말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전도라는 말 그 자체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전도라는 것은 자기 조직이나 교회의 어떤 볼륨을 크게 만드는 어떤 잣대입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전도라기보다는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사람을 우리 교회로 데려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우리 교회에 데려오는 것을 굉장히 원치 않습니다. “너 같은 놈인데 너 같은 놈을 또 데려온다.” 이것은 골치 아픈 일입니다. 하여튼 교회에 데려오는 그것은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복음의 생명을 주는 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에스겔은 그렇지 않을 때 피 값을 우리에게서 찾는다고 말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열방 교회가 진리체계의 완전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 이제 진정으로 복음에 대한 생명력을 키울 때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무엇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더군다나 저는 전도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 생명력이 움직이면 건딜 수 없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를 가서 이것은 똥개 전도법, 감자 전도법 배워와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복음 전하는데 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방법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생명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영광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는 아주 조만간에 이제 모두 다 사역팀이 되어서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나갈 것입니다. 엄밀히 따져서 그 시간을 지금 20년을 제가 보낸 것 아닙니까? 이제 준비되어야 합니다. 진정으로 말씀을 들은 기쁨,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생명력의 감격 이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고강도의 진리를 들은 책임을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그것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복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이 진리에 대한 책임을 질 때 복된 것입니다. 이 진리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고 복음과 관계없는 삶을 살 때 이것 책임 물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복음으로 인해서 거룩해지지도 않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살면 그 심판은 지독할 것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에 살면서 여전히 세상적이고 여전히 세상적으로 타락하고 쾌락욕에 찌들고, 이것 아주 지독한 심판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 사실 무서운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아모스를 통해서 진리 완전체를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복음에 대한 생명력이 커져야 합니다. 예수의 피의 흐름들이 실체화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어떤 것도 내 힘으로 만들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철저히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분이 주신 것, 그분이 이루신 일들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생명력도 사실 그분이 이 복음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느냐,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객관적인 진리를 자꾸만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주관적인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 객관적인 진리를 통해서 자꾸만 내 묵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하면 그 말씀은 이제 레마가 되는 것입니다.

본론

4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앞에서 계속했던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죄가 있으나 오늘 너희들에게 심판을 철회하지 않는 이유는 이거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의 심판의 기준을 보겠습니다. 모든 인간들에게 하나님이 적용하는 심판의 기준을 크게 본다면, 공의와 정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는 도둑질한 죄, 살인한 죄, 이렇게 죄의 목록이 다 틀린 것인데, 그 말은 죄에 대한 리스트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의 기준이 다 틀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서 그것 다 필요 없습니다. 엄밀히 따져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사형입니다. 우리는 공평하다는 말을 하나님의 공의로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많이 가진 사람은 행복하고 적게 가진 사람은 불행하고, 똑똑한 사람은 행복하고 머리 나쁜 사람은 불행하고, 세상이 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있는 만큼 빼앗기는 것이고 가진만큼 빼앗기는 것이고 누리는 만큼 빼앗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무것도 불평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공평하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한 공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이 공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기준에 근거되는데, 제가 5장에서 그 공법과 정의를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제데크’와 ‘미쉬파트’입니다. 그것이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러 가지 할 이야기가 있는데, 이 공의와 정의라는 기준은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겠다는 의지입니다. 예를 들면 세상에는 어떤 죄를 짓고 걸리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감방에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은 걸렸고 우리는 안 걸렸다는 차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민족, 나라, 개인 누구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 정의와 공법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죄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은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의 두려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죄짓고 30년 동안 아무 일 없었다, 그러면 인간들은 “아무 일 없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반드시 죄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반드시 민족, 개인, 사회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집행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자신들이 선택한 악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싸룩스라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육은 반드시 죄를 짓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의 말처럼, 자기로 사는 자를 악이라고 말했고, 자기라는 육체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죄의 결과를 갖는 것입니다. 자신이 말하고 행하고 무엇을 하든 다 죄입니다. 숨 쉬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그러니 육체로 사는 사람은 똑딱할 때마다 죄가 하나님 앞에 싸이는 것입니다. 그것 알면 강박관념 때문에 그 사람 못 살 것입니다. 사실 육체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입니다. 자기는 잘났다고 이 땅에서 돈으로 무엇으로 화려한 삶을 누리고 있지만,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딱할 때마다 죄가 똑딱, 똑딱 계속 싸이는 것입니

다. 그것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냥 건강하게 사는 것 같죠.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이 육체의 본질이고, 악인의 본질이고, 자기로 사는 사람의 본질입니다. 똑딱할 때마다 죄가 똑딱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 모르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알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인 자체가 행하는 모든 것,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듯이 그 행위가 다 죄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은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의 행위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교회에 대한 심판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어떤 행위의 결과를 하나님이 먼저 심판하시기보다는 본질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 훨씬 더 이스라엘과 교회에게는 차원 높은 기준을 주님께서 들이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준이 영으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섭도록 무거운 일이고, 그러나 영으로 사는 사람에게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살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이런 복된 관심이 되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이나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이 그러한 기준 속에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취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는데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입니다. 원래 계명은 열 번째까지인데, 이 말씀이 다가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하나님께 "열 번째 계명, 열한 번째 계명, 열두 번째 계명, 열세 번째 계명은 없습니까?" 이렇게 그 하나님의 기준을 더 찾을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고 거룩을 주셨고 보혈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심지어 천사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세상에서 결코 그렇게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 죽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속아서 이스라엘이 이러한 하나님이 취하신 모든 조치를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에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적으로 제가 바벨론과 종교 이야기를 많이 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 살면 필연적으로 이 원수의 소리를 계속 듣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 계속 속는 것입니다. 종교로 살면 음녀의 소리를 계속 듣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분명히 예수가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자명한데도 불구하고 "인간 예수!" 이야기하면 저한테 이단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귀에 대고 음녀가 계속 속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에게 나를 열어놓으면 안 되는 것이고 음녀에게 나를 열어놓으면 안 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그렇게 살 필요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자꾸만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높은 기준을 세우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제사장이고 왕의 존재이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평민과 왕이 똑같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왕조실록에 보면, 태자들이 교육을 받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태자들이 몇 시에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새벽 4시면 일어납니다. 4시부터 일어나서 선생님들과 모든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대면하는 학자들이 몇 명인지 모릅니다. 적어도 하루 동안 7-8명, 무슨 강연에 나가서 세미나를 들어야 되고, 또 왕과 만나서 국정을 논하는 것들로 이야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태자는 보통 밤 11시나 돼서 잠을 잡니다. 그러니 하루 5시간을 자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태자들의 교육입니다. 이제 그것을 거부하는 태자들은 왕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과 같은 똑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똑같은 세상의 윤리와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였습니까? 우리는 거지였습니다. 거지였다가 하나님이 파격적으로 왕자로 채택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아직까지 거지 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거지 같은 근성을 가진 우리를 왕자답게 만들려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신 것입니다. 최고의 선생님들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 말씀, 보혈, 권세, 능력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기 때문에 이것들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말들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물든 유다의 악의 선택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는 그들이 여호와와 율법을 멸시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그 약속에는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복을 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받고, 어떻게 하면 영화로운 삶을 살고...' 이런 모든 것이 다 율법에 기록되어있는 것입니다. 또, '무엇을 먹어야 되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며...' 이런 모든 아주 시시콜콜히 모든 삶을 다 기록했습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자기가 선택한 어떤 선택이 다가오는 시간 속에서 어떤 일들을 만들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사는 자들은 어떤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말씀을 보면 다 보이는 것입니다. 마치 거울에 자기 모습이 비치듯이 훤히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삶의 선택이 무엇을 결정할지를 알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올 미래를 걱정합니까, 안 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가 순종한 말씀의 약속이 모두 다 율법에 기록되어있는데, 그러니 크리스천들이 앞일을 걱정하고 비전을 걱정하고 그리고 어떻게 될 거냐를 걱정하는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비전이 뭐니까?" 이런 말 물어보는 것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선택할 삶의 내용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으로 살면 내 삶의 내용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매일 염려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맨날 걱정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으로 사는 이스라엘은 그 말씀을 순종하면 그 선택이 나의 인생을 어떻게 결정할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귀신들을 보는 '주자학'라는 책을 봐도 그 정도 인생을 보는데, 그 책을 보면 "~~~~~ 그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나옵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만유를 창조하신 그분의 말씀의 약속을 보는데 인생이 안 보인다면 말이 되느냐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어떤 심오한 계시나, 무엇을 풀어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지고 보면 보이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이스라엘은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스라엘은 내가 선택하는 일의 결과가 뭔지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안 한다." 이것이 인생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선택하는 지금 쾌락, 이것이 인생에 무엇을 낳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무서운 일입니다. 우연히 인생이 묵이고 그렇게 곤두박질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이 전부 회복할 수 없는 모든 곤두박질치는 역사가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세상 놈들 이라면 그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파격적인 선택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된 이스라엘이 그렇게 산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위력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멸망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몰라서라기보다는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모르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근원적으로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에 알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그분이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안다면, 나의 모든 시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데 투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여기에 나의 모든 인생의 축복과 영광이 다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아모스를 설교하고 미가서를 하고 하박국을 하고 이런 설교를 다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물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제가 30년 전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저는 믿는 것입니다.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어마어마한 하나님, 보니까 이 성경이 그분의 모든 약속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니 "하박국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 아모스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 미가서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 학개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 스가랴에는 무슨 약속이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성경 66권을 다 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제가 또 여기 목사가 되었는데 여러분에게 이 축복을 말해주지 않을 수 없잖아요? 사실 이것 생각하면 돈 받고 내줘야 되는데... 여러분이 저의 영적 자식이기 때문에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세상에 취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들어온 가장 중요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농도가 진하면 진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우스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 중에 그것을 받아들인 증거는 무엇이나?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내 안에 왔다, 그러면 말씀이 두렵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어떤 것도 늘 공통점은 경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경외를 잃어버린다는 것은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완전히 그냥 물어버렸든지. 이스라엘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은 아예 말씀 자체를 받지 않았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세상으로 덮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태를 지금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것인가? 여러분, 효자는 누구입니까? 부모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가 "그것 하지 마라"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패역한 놈들이 누구입니까? "아버지 너는 짓어라. 나는 간다." 그것이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경외해야 합니다. 세상이 들어온 가장 큰 증거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습습니까? 우리 이스라엘에 가 봤지만, 온 사방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이고 삽니다. 문지방에 붙이는 메주사(Mezzuah), 그것 천장에도 붙이고 담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머리에도 붙이고 허리에도 붙이고 온 말씀을 바르고 다닙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부적의 신통력보다 못해?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보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제가 첫 번째 교회 옮기 전에 있던 성도 중에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우상숭배를 멈춘 사람이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 집에 부적이 붙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적이 얼마짜리냐? 하여간 굉장히 비쌌습니다. 얼마인지 기억은 나지 않는데 굉장히 비쌌습니다. 능력 없는 부적은 십만 원, 이십만 원밖에 안 합니다. 그런 부적은 보통 사람이 찢어버리거나 태워버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급하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이 부적을 떼다가 손이 뒤틀렸어요." 부적도 값이 나가면 이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부적이 능력이 있으려면 사람의 피가 거기에 들어갑니다. 아니 보세요. 사람 피가 들어간 부적도 신통력이 있는데, 아니 우리 주님의 보혈로 쓴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부적값도 못합니다. 아니 옛날에 휴지가 없었을 때는 이 성경의 종이를 화장실에 갈 수 있나 모릅니다. 이것

으로 화장실에 가서 해결 못하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습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엄청난 위력인데. 우주를 지금도 통치하고 있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능력의 말씀인데, 세상에 물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우습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말씀한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은 '토라'이고, '율례'라는 것은 '그 세부사항'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법을 어겼다는 것은 헌법을 어긴 것입니다. 율례를 어긴 것은 토라를 어긴 것입니다. 율례를 순종치 않는 것은 토라를 멸시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관계된 모든 것은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쫓아다닙니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 방법대로 함부로 그렇게 결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평안이고 그리고 자유입니다. 그것은 왜 그런지 뒤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순간순간 자기 삶의 지침이 된다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거울처럼 자기를 볼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나...' 아니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이 먹는 것까지 주님이 간섭하고 계셔?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너 이것 먹으면 건강 나빠진다. 이것 먹어야 건강에 좋다." 성경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어떻게 말해야 되느냐, 어떻게 예배드려야 되느냐, 어디로 가야 되느냐, 얼마만큼 가야 되느냐', 시시콜콜히 자기 삶의 모든 행동반경을 이 성경이 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했지만, 그러한 모든 순간에 내가 그 말씀을 선택하면 내가 어떻게 될 거라는 염려는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은 늘 히브리말로 '하야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야 동사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매 순간에 내가 무엇을 선택할 것이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 아모스는 여러분에게 영광을 크게 하는 일들을 오늘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간순간 선택하고 살 때 우리는 결코 미래가 불안하거나 어떤 일의 결과를 불안해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관계된 것은 다음 주에 제가 설교할 것이고,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갈망되지 않고 하나님으로 사는 그 거룩에 대한 어떤 갈망이 식어진 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살지 않는 증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렇게 나의 모든 행동 지침을 하나님이 해 주셨다는 것은 진정한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평안이 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네가 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이제 골치 아픈 것입니다. "네가 알아서 한 번 살아봐." 로마서 1장 28절, 하나님의 가장 지독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 인간은 네 마음대로 하면 아무

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받은 심판이 무엇입니까? “네 마음대로 해라.” 유리방 황입니다. 사실 인간은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있어야만 되는 존재로 창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히 간섭하시고 주셔야 사는 인생입니다. 뒤에 ‘창조의 질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렇게 시시콜콜 나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압니다. 평안을 줍니다. 진정한 자유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은 이런 조치가 불편합니다. “아니, 뭐 이런 것까지 말씀하셔? 아니, 내 마음대로 먹으면 얼마나 좋아.” 자녀들도 “야, 그것 먹으면 건강에 나빠.” 맨날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그것 먹지마. 먹지마. 몸에 안 좋아. 안 좋아.”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지가 뭘 먹든 제가 무슨 상관입니까? 그래 “치킨 먹지마. 치킨. 피자 먹으면 안 돼. 밀가루 음식 그것 정말 살찌는 거야.” 벌써 하나님으로 살지 않으면 이런 것이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불평이 나옵니다. 그리고 끝내는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세상의 경향성이 없다면 항상 성경을 펴면 그 성경은 거울에 나를 비추듯이 내가 환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컬러는 항상 영원한 현재형이신 하나님과 지금 만나는 시간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렇게 지금 나태하면 인생 쪽박 차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 밖에서 물고기가 살 수 없듯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 밖에 나가면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참다운 행복과 자유는 그렇게 매사에 모든 시시콜콜히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뭔가 온전치 않는 인간으로부터 계속 조정받는 것을 싫어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관계입니다. 사실 부모님들은 그런 분도 아니지만, 부모님이 사랑해서 “뭐하러. 뭐 하지 마라.” 합니다. 그런데 벌써 중고등부의 나이 정도되면 “엄마는 너무 간섭 많이 해. 우리 아버지는 너무 잔소리가 많아.” ‘잔소리’라는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패역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고 죽는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는 완벽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분이 주셔야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분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완벽하게 장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의 조상들이 따라가던 거짓 것에 미혹되었음이라** 이스라엘이 이렇게 세상의 경향성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모든 흐름은 조상이나 지금이나 똑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간이 가진 악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서 취하신 조치가 무엇인가를 날마다 인식하고 살아야 합니다. 보혈이라는 그 능력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말씀의 권세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이런 모든 묶임들과 굳어짐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이 말씀 밖에 있는 이유는 세상 것을 받아들여서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말씀 밖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짓’이라는 말 자체는 ‘우상’이라는 말과 같이 쓰이는데 사실 복수입니다. ‘거짓들’입니다. 그러니 ‘우상들’이겠죠. 그러니 세상이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세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은 자기 탐욕에 다른 영이 접한 상태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탐욕의 영들은 반드시 내 선택에 의해서 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이 말하는 것은 다 거짓입니다.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이야기했는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버가 되었음이라' 사단은 거짓의 아버지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밖에 못 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사단은 거짓말밖에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는 모든 것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을 사단이 지배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매일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말했든, 어떻게 말했든, 무엇을 말했든, 절대로 믿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은 철저히 분리되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진리가 아니고, 세상은 그것을 말한 것을 지킬 능력도 없고, 세상은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허무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국은 내일이면 불타 없어질 기업이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소리를 들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늘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동시에 그것은 사단의 소리를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 거짓됨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나의 존귀를 듣고 그분의 소망을 듣고 그분의 능력을 듣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존귀히 여기시느냐? 계속 이런 소리를 듣는데, 반대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그 귀에 대고 매일 귀신이 속삭이는 것입니다.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 돈 있는 것이 최고야. 야, 너 쾌락이 얼마나 좋은지 알아." 계속 귀에 대고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살면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에게 매일 아침마다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너는 머리가 나빠." 계속 매일 말해보세요. 사실 그런 사람들 제가 많이 사역했었습니다. 부모의 저주에 묶인 사람들, 요즘은 그런 부모님들 잘 없지만, 저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그렇게 욕을 잘했습니다. 보통 시작이 "이 망할놈의 새끼야." 그런 소리 듣고 망하지 않은 것은 전부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 더 화나면 뭐라고 말하느냐? "이 염병할 놈아!"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 아이들은 다 말로 묶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소리를 듣는 것이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자꾸만 세상으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즉각적으로 세상을 접하면 세상의 소리를 듣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핸드폰이나 이런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합니까? 그것은 직접적으로 영적으로만 듣는 것이 청각적으로도 그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요즘 아이들이 맛이 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계속 거짓된 소리를 듣고 살기 때문입니다. 그것 자체가 이상숭배입니다. 이 시대 돈이 전부 하나님이 되잖아요? 계속 세상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이 전부 탐욕과 그런 이상숭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음란하고 패역한 곳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옛날처럼 눈에 보이는 우상은 없지만, 이 세상 모든 것 자체가 사단이 움직이는 탐욕이라는 우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돈이 다 이상입니다. 심지어 교회에 십자가를 달지 말고 이제 돈을 달아놔야 합니다. 교회마저도 돈이 이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신이 무서운 것입니다. 고대 팔레스타인의 모든 풍요의 신의 흐름들은 지금도 현대를 죽이는 아주 중요한 이상숭배 아닙니까? 이것 우리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죽는 확실한 이유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상에 물들면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순종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짓 것에 미혹되는 것입니다. 이것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신약에서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신이 하나님의 복음의 영광을 미혹시킨다고 했습니다. 미혹 자체

가 본질을 못 보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세상이 물들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본질을 절대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안 들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이라는 것은 정말 위험합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모르면 세상에서 뒤쳐진다.' 그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오히려 세상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서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알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사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알면 모든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이 있다면 모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다 있어도 없는 것이고, 그분을 모른다면 다 알아도 다 모르는 것입니다. 인생은 하나님으로 승부내는 것이지 다른 것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것이 이게 무슨 진리여야 말이죠. 세상 것이 영원해야 말이죠. 진리도 아니고 영원치 않는 것을 알아봐야 뭐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살면서 세상 것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아는 것이죠. 그러니 세상 것을 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5절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유다에 불을 보내리니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입니다.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완전히 그 자체를 없애신다는 것입니다. 역사 속에 이 일들은 다 성취되어왔습니다. 그리고 아쉬운 것은 무엇이나?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할 때 유다가 이 아모스의 설교를 귀담아 들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멸망에 대해서 크게 생각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유다 멸망의 결정타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한 인생을 우연히 그냥 갑자기 멸망시키시는 법이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그 임계치를 쌓는 것을 항상 알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이 우연히 갖다가 내팽개치는 법은 없습니다. 계속 경고하시는 것이고 "너 그렇게 살면 죽는다. 너 그렇게 살면 인생 망한다." 계속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그래서 그 임계치가 다하면 하나님이 거둬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의 임계치와 이스라엘의 임계치는 아주 확연하게 틀립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 때 이렇게 번성했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백 년 조금 넘는 시간에 벌써 이렇게 타락이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번성한 시간 30년 만에 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어떤 민족보다도 빠른 시간에 멸망이 옵니다. 그것은 무엇이나? 이스라엘의 임계치는 세상의 임계치와 틀리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심판해 버리시지만 이스라엘은 더 그것이 아주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이 가진 영적 영향력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심판은 세상의 심판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놈들이 술 처먹고 똥 짓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교회 안에서 그런 쾌락을 즐길 때 하나님의 임계치는 아주 지독하다는 것입니다. 종교화된 교회 안에서는 주일을 지키든 안 지키든 똥 상관입니까? 십일조 드리든 안 드리든 무슨 상관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임재가 있는 교회에서는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런 교회에서 쾌락욕에 젖어두고 세상에 젖어든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열방 교회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주 분명히 신속하게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열방 교회에서 3명이나 죽었습니다. 한동안 10년 동안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왜냐

하면 여러 가지 수만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에 대한 분량이 삭제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런 시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거룩의 잣대를 들이대는 시간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에게 사실 기쁨입니다. 제가 10년 동안 계속 하나님 앞에 올랐던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 이 교회의 잣대를 옮기셨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됐는데도 그냥 놔두십니까?" 저는 1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다시 거룩의 분량으로 올려놓고 계십니다. 이제는 그것이 완전해야 합니다. 한 점의 죄라도 있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면 즉사해 버리듯이 교회는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영광이 움직이는 교회는 그래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계속 금식하면서 우리 OO도 40일 금식하겠죠. 우리 청년들이 금식하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지금 8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 금식하고 있습니다. 금식 그 자체가 우리의 의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자꾸만 교회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이번에 청년 집회가 가히 기대가 됩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자꾸만 거룩의 손실을 주는 일들을 만들면 안 됩니다.

앞에 유다의 심판은 본질에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을 무시하고 불순종하고 세상에 빠지게 되었고, 그러니 이방인의 심판은 죄의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심판은 언제 시작되느냐? 죄의 동기가 시작될 때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과 이스라엘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동기 자체부터 죄를 포기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권세와 조치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약에 있어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임재였고, 신약은 보혈과 말씀과 그분의 영광이 우리 안에 다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동기적으로 죄에 대해서 끊어내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심판을 당하는 것은 성령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신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대가와 희생을 치르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지 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 다음 주에 나올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당하는 것은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만들었는지 그 영광스런 그 관계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은혜를 못 받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는 이것 사실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에게 예배라는 것조차도 사실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전도해야 합니다. 한동안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Seeker's Service입니다. 그것 구도자 예배(열린 예배)입니다. 구도자 예배라는 말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그것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만든 교회 망했죠. 그런데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드릴 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 빠른 시간 내에 영광을 못 보고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은 빨리 구원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당연히 그렇게 순종하고 살 수 있고 모든 죄의 동기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말씀의 영광이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물든 이스라엘은 세상은 얼마든지 데리고 놀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이 세상과 똑같이 살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도 죄의 목록들을 보세요. 이것은 이방인들도 이런 죄는 짓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종교가 될 때 원수들은 교회 안에서 어떤 일도

가능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가히 가질 수 없는 탐욕, 세상 사람도 상상할 수 없는 음란, 명예욕, 제가 나온 교단은 지금 15년 동안 법정에서 감독 회장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성도들의 헌금 수백억을 재판에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원수가 웃기냐면, 재판을 하면 이번에는 이편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다른 편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다른 편을 이기게 합니다. 그러면 또 이편에서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이편을 들어줍니다. 완전히 데리고 노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 성경에는 고린도전서가 없습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교회가 종교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영을 통해서 다른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이고, 교회는 종교의 영을 통해서 다른 영들을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그것만 다를 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을 보세요. 이스라엘의 타락은 세상의 타락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타락이 어디서 시작된 것이냐? 솔로몬이 죽고 르호보암이 왕이 됩니다. 북쪽에 열 지파가 솔로몬처럼 다스리지 말고 우리를 잘 대해주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북쪽 열 지파는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워서 따로 분리가 됩니다. 그러자마자 북쪽 이스라엘은 벰엘에 예루살렘 같은 제단을 세웁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제단을 세우자마자 우상숭배가 일어납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분명히 이사야 2장 3절이 말하고, 미가서 4장 2절이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시온과 예루살렘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예배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좌정하셔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예루살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자신들이 정치적인 목적이나 자신들의 욕구 때문에 힘들 수 있지만, 자신들이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믿었다면 결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말씀을 떠나고 예배의 영광을 떠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입니다. 즉각적으로 타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본질의 심판이 아니라 행위의 심판을 받는 그런 타락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 7장에도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떠나서 그렇게 타락한 삶을 살게 된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게 되었다. 금강석 같이 굳어졌다.' 그러니 어느 선지자나 다 이스라엘을 보는 눈은 똑같습니다. 말씀을 떠나고 예배를 떠나면 그들이 타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북쪽 이스라엘은 즉각적으로 영광이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백 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벌써 아모스처럼 이렇게 타락한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떠나고 예배 떠나면 타락하는 것입니다. 거룩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독교 이천 년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무기력한 교회가 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대 교회의 그런 말씀과 예배 영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무기력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이런 모든 본질을 하박국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해이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풍 걸렸다. 중풍은 무엇입니까? 마비되는 것입니다. 이제 능력이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에 말씀을 불이고 사는데 부적보다 신통력을 잃어버린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하나 다스릴 수 없는 말씀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전부 세상을 받아들인 결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은 원수입니다.

6-8절, 북이스라엘의 심판입니다.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결례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심판이 취소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여기 '의인'이라고 말한 것은 'righteous'인데, 이것은 '결백한 자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백한 자들을 은 때문에 판다는 것입니다. 왜 결백한 자이나? 억울하게 잡혀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 힘이 없고 소위 말하는 뺨이 없고 이래서 잡혀 온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잡혀 오면 속전을 내고 해방이 되어야 하는데, '은'이라는 것은 '속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속전을 못 낼만큼 가난하기 때문에 노예로 팔리는 것입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여로보암 2세 때 국가는 최고의 번성과 풍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부와 풍요는 위의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다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이스라엘만의 일이 아닙니다. 세상의 악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 다스리는 모든 세계는 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세계의 모든 부의 99 퍼센트는 다 그렇게 상위 0.00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다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쩌면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다 노예화 시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원수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는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팔아도 갚지 못할 경우에는 원래 율법에는 자기나 자기 식구 중에 누구를 노예로 보내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율법에 그렇게 말한 이유는 그 사람을 노예로 팔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가정을 회복시키는 제도입니다. 마치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을 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약한 여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의 정신은 약한 자를 보호하는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악용해서 자신들의 부를 채운 것입니다. 사사롭게 돈을 시간 내 갚지 못하면 그렇게 노예로 팔아버리는 것입니다. 돈이면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약자는 살 수 없는 그런 세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어떤 제도도 타락한 인간이 다스리는 세계는 그런 것이 당연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이 민주주의가 되었든, 그것이 사회주의가 되었든, 이것은 다 바벨론입니다. 다 함께 바벨론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완전한 나라, 그 나라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그러니 항상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세상의 나라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말했지만, 이런 모든 영향력은 풍요의 신의 물질 만능주의의 그런 흐름 속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의 그런 욕구가 만들어낸 삶입니다. 하박국의 말처럼 자기 힘으로 신을 삼는 자들, 바로 이 바벨론은 힘을 숭배하는 세상입니다. 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사람, 이것 정말 위험스런 사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거부해야 될 많은 이유가 있지만, 교회가 이 바벨론의 흐름을 받아들이면 교회도 힘을 숭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왜 교회가 수만 명, 수십만 명 그렇게 사람이 많아야 합니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으면 좋지." 그런데 과연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 몇 명이나 될까? 힘을 숭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구원의 확증을 가진 자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것이 '에클레시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기로 결단하고 목숨 건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거룩을 위해서 목숨 건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영원한 것을 갈망하며 그곳에 섰을 때 내가 그분을 자신 있게 얼굴을 대면할 수 있는 자들이 가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된다면 할렐루야 영광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힘의 숭배의 영향을 받아서 교회도 그렇게 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결탁해야 되는 것이고, 세상의 힘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부와 권력이 있는 자와 같이 인맥을 같이 해야 되는 것이고, 더 이상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결별해야 될 중요한 이유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주는 것들로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어온 만큼 거룩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또, **신 한 켄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이 말은 채권자가 빚을 갚겠다는 약속으로 신발 한 켄레를 받는 풍습에서 온 말인데, 그래서 그 사람이 빚을 못 갚아서 그 신발을 제 3자에게 줘서 그 사람을 노예로 팔아버린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신 한 켄레는 매우 작은 양의 물질을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최소한의 생존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빚을 가지고도 인신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풍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합니까? 그것은 부요한 사람이 권세를 가진 자와 결탁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항상 인간의 역사의 흐름은 부와 권세가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없는 자를 그렇게 학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제국과 모든 세상의 세계는 이렇게 부와 권력이 항상 함께 야합을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큰 교회들은 법대 다니는 사람 따로 키우고, 이렇게 유력한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키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시대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시대뿐만 아닙니다. 바로 음녀의 교회들도 그런 것이고 반드시 교회가 종교가 돼서 타락하면 이렇게 부와 권세와 야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교회 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결탁할 수 없습니다. 왜? 세상은 어둠이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그 어둠을 어둠이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교회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는 어떤 조직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을 초월해서 그 세상을 하나님 대신에 다스릴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하나님으로만 통치되어야 하는 것이고, 어떤 풍성함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풍성함이고, 어떤 권세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일 뿐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필요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세상의 부요함과 세상의 권세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는 소자의 나라입니다. 소자는 누구입니까? 소자라는 것은 원래 그렇게 연약하고 원래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그 시스템이 이 소자를 생산한 것입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되었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소자의 신음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이라는 세상의 악한 구조는 어떻게 살아도 소자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

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파괴되지 않으면 이 세상에 소자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로 살면 이 세상에 소자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소자로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이 바벨론의 시스템에서 창조의 질서로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부요함, 세상이 주는 권세에 통치받지 않는 자들입니다. 지금도 말했지만, 하나님은 소자의 신음 소리를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소자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은 완전히 다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자들은 신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권세로 선포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소자의 삶을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거나 교회거나 소자가 될 때 사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소자들은 하늘을 여는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겠지만, 창조의 질서의 핵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의 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는 하나님이 주신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주신대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약해진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그렇게 디자인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사는 존재입니다. 이런 문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어려움을 느끼면 안 됩니다. 많이 아직도 율법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셔서 사는 인생이라는 것이 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창조의 질서 속에 살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소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그렇게 수많은 부를 축적할 이유가 없는 것이고, 그렇게 수많은 부를 축적해야 되는 이것은 바벨론의 시스템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교회가 추구하는 것과 복음이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딴판입니다. 성경은 철저히 세상과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했지만, 이 시대 교회들은 어떻게 드리느냐보다는 많이 드리는 것이 선입니다. 모닝 타고 다니면 저주입니다. 최소한 제니시스는 타고 다녀야 합니다. 밴츠는 어떻습니까? 그러니 모닝 타고 다니면 저주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말하는 축복의 기준입니다. 아주 웃기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풍요의 신의 영향이라는 것입니다. 소자라는 것은 하찮은 세상에서 하찮은 존재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힘이 지배하는 바벨론의 세상에서는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만유의 주재이신 하나님이 바로 소자의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소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자의 삶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삶입니다. 아무리 바벨론이 원하는 것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소자는 거기에 굽힐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부러 여러분이 소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의 원리로 살고 창조 질서에 살면 소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소유할수록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소유하는 것이 불편해질 수가 있어야 합니다. 뒤에서 그런 이야기 더 하겠습니다.

7절, 심판의 기준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7절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힘 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마치 가난한 자들의 머리를 먼지처럼 밟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 인간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이것은 아주 인간성 말살을 이야기하

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죽이는 것입니다. 늘 말하지만, 돈이 없다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돈이 없다는 것이 수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룩한 존재를 모르는 것이 수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은 관두더라도 옛날에 우리 조선 시대 때, 선비들은 늘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냉수를 마시고도 이를 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만큼 항상 뭔가 자부심이 있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그것 위선이죠. 그것은 위선이라기보다는 선비된 그런 자존감인 것입니다. 그러니 선비들도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 기개도 없어서 어떻게 삼니까? 그러니 돈이 없다는 것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정말 수치스러운 것입니다. 이 풍요의 신에 물든 바벨론은 돈을 통해서 계급 사회를 만든 것입니다. 인종차별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 바벨론에 대해서 무한한 분노를 느끼고 계십니다. 그분은 한시라도 이 바벨론을 빨리 파괴하고 싶어 하십니다. 단지 하나님의 자녀들을 더 온전한 곳으로 인도하는 시간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이 바벨론은 아무리 잘 살아도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일이면 불타 없어질 기업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의미에서 소유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여야 합니다. 그러니 많이 가질수록 많이 빼앗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모든 것을 불공평하게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많이 가지면 많이 빼앗기는 것이고, 없으면 주시는 것이고, 그분을 의지하는 만큼 그분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워져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소유할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숭불을 올려 쌓는 것과 똑같습니다. 절대로 인간이 가진 것으로 그 사람의 존귀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존귀는 바로 하나님을 알고 있느냐? 그분의 말씀을 가지고 있느냐? 그분이 나를 인정하시느냐?' 여기에 우리의 존귀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며** 이 말은 '걸어가는 사람을 길 밖으로 밀어내는 것'을 의미하는데, 상징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압제 당하고 누명을 썼을 때 그 억울함을 마을의 촌장이나 법정에 호소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 자체의 말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이 결탁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라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그런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인맥을 구성합니다. 그래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얄층의 갈망입니다. 모든 바벨론 세상에서 사는 사람은 자기가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모두 그렇게 로얄층의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모들 보세요. 학원을 열 개 보내는 부모들, 다 왜 그런 것입니까? 자기는 로얄층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너라도 잘 배워서 로얄층에 들어가서 그리고 너 때문에 나도 로얄층에 같이 들어가자" 그것 때문에 애들을 다 잡습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본 일이지만, 아침 6시부터 밤 12시까지 학원다니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돈이 보통이 아니라 영어 한 과목에 천만 원씩입니다. 이것은 거의 돈 지랄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이 로얄층의 갈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소유욕이나 안정욕, 명예 쾌락욕이라는 이런 욕구는 이런 바벨론이 주는 특별한 별미를 갈망하게 하는 욕구인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인간들은 그런 바벨론이 주는 대세의 흐름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Fringe입니다. 인간의 대세의 흐름에서 쫓겨난 자들, 성경의 모든 인물은 다 쫓겨난 자입니다. 예수님마저도 쫓겨난 자입니다. 그러니 성경은 정반대의 바벨론적인 사람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도 이 바벨론의 흐름에 살기 때문에 높

아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로얄층을 갈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를 통해서 로얄층에 들어가자. 바벨론에서 안 됐으니까 교회 와서 되자.” 그러니 교회 안에 장로, 권사 이것 전부 명예직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서는 지지리 궁상이라서 못했지만 교회라도 와서 장로 되어보자.” 우리 교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런 분들이 아니고 다른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도 장로, 권사 임직 줄 때면 항상 로얄층에 대한 갈망 때문에 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나는 안 돼! 나는 왜 안 되는 거야!” 이것 크게 회개할 일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의 시스템은 정반대다. 말했지만, 창조의 질서의 핵은 은혜의 원리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벨론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박국에 뭐라고 합니까? 심고 거두는 원리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많이 심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빼앗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하고 자기 소유 아닌 것을 계속 빼앗는 것입니다. 소유욕이라는 것이 이렇게 위험한 것입니다. 소유욕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나라와는 관계없는 욕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가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모두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 앉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누릴 만큼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왔기 때문입니다.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원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창조의 질서 속에서 산다면 우리는 누리는데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개인적인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바로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그 창조의 질서를 회복시킨 곳입니다. 우리 열방 교회가 아직 온전치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거라고 볼 수는 없지만, 바로 초대 교회가 그 모습을 보였고, 우리 교회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어둠이 완전히 이 세계를 덮을 때 교회가 어떻게 사는지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다 굶어 죽겠다고 힘들어 죽겠다고 그럴 때 열방 교회는 “야유회 가!” 일 인당 3만 원씩 주고... 그러니 창조의 질서를 회복한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바벨론이 주는 풍요를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벨론이 주는 풍요는 반드시 우리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풍성을 잃어버리게 하는 원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단순히 돈 몇 푼 잃어버리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풍성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돈이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보세요. 지지리 궁상으로 가난할 때도 우리는 몇백억씩 선교비를 썼습니다. 점점 목회자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한 달이면 사례비가 6천만 원이 나갑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 특별한 부자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사실 계산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 입장에서 볼 때 어찌하든지 부교역자를 줄이는 것이 저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실지로 몇 십만 교회를 다닐 때도 부목사는 12명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50만 명인가? 아니 교역자들을 보면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습니다. 교역자들이 이번에 놀러 가려니까 버스 한 대 대절해야 합니다. 분명히 그 교회의 담임 목사는 정신이 나갔든지 뭔가 있는 목사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물에 투자하는 대신 지난 20년 동안 사람에게 투자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복

음을 위해서 투자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자꾸만 바벨론의 풍성을 받아들이면 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로 세상이 주지 않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괴로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원이 다른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믿어져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의 것들로 잣대를 삼으면 안 됩니다. “나는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의 풍성함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과 잇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야처럼 영적 두로를 세운다. 그것은 마지막 오는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부자로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에누리 없이 모두 하나님의 나라로 사는 사람은 소자의 삶을 살게 되어있습니다. 이것 명심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복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부와 권력은 반드시 쾌락욕을 동반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쾌락욕을 즐기는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세상 것들, 스포츠를 즐기고 이 모든 쾌락욕의 근원은 바벨론의 부와 권력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3S, sports, screen, sex, 이것은 사단이 인간을 헬렐레하게 만드는 아주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도 우리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는데,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밀접하게 다스림을 받으면 자꾸만 바벨론은 완전히 나와 결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님 중에서 “목사님, 야구 보는 것 어때요?” “축구 좀 보는 것 어때요?” 여러분, 축구 자체가 뭐니까? 그것이 다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여러분, 그 운동선수들이 수백만 불 돈 벌어서 지금 뭐합니까? 스포츠라는 것이 벌써 우상숭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스포츠 선수 단 한 명도 안 나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스포츠 선수들은 주일을 지키지 못하잖아요? 2주 주일 예배 못 지키면 잘리잖아요? 그러니 우리 교회에서는 스포츠 선수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이런 쾌락욕에 물들면 안 됩니다. 경쟁과 나와 관계없는 사람을 적으로 만들고 탐욕과 음란과 여론을 중요시 여기고 인기를 중요시 여기고, 세상의 첨단이 스포츠입니다. 영화는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음란은 말해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니 거룩한 교회를 다니면서도 더군다나 이런 일에 물든다, 이것 큰일 나는 일입니다. 그렇게 쾌락욕이 즐거우면 그렇게 쾌락욕을 해도 심판받지 않는 그런 교회 다니면 됩니다. 경고합니다. 열방 교회에서 그렇게 쾌락욕에 젖어들면 죽습니다. 저는 죽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열방 교회를 이전의 거룩의 기준으로 올리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 청년들이 애써 금식하며 이렇게 8개월 동안 계속 왔습니다. 물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된 것이죠. 절대로 쾌락욕은 교회 안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다.’ 특별히 하나님으로 만나는 감격과 기쁨이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열정과 그리고 기쁨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쾌락욕이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것 세상에 물들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인에게 음란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우상숭배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종교 창녀가 존재했었는데,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나? 오늘 여기 나오는 젊은 여자는 그런 여자가 아닙니다. 일반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일반 여인이 지금 아버지와 아들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누군지는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말씀의 흐름으로 보면 이것은 일반적으로 하녀가 분명합니다. 힘이 없고 저항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약한 자를 성적으로 남용하고 학대하는 그런 파렴치한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돈과 권력이 있으면 반드시 음란은 따라다니게 되어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 여인에게 두 남자가 가는데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인간성도 수치심도 이제 상실된 그런 마비된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악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혼외정사라는 것이 얼마만큼 악한 악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혼외정사 정도가 아닙니다. 이런 가정들이 정상적인 가정이 될 수 없습니다. 로마가 멸망한 이유도 모든 가정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니 이런 가정의 아내들이 어떤 여자일 것인가, 한 번 생각해 보세요. 그 상처, 그 절망감, 그 분노, 반드시 남자가 외도하는 자매들은 그런 아픔과 상처가 반드시 있습니다. 분노, 절망, 상실감, 남편을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입니다. 상처, 그러니 그 부부간의 신뢰를 잃어버린 그 관계, 남편과 부부 사이에 신뢰를 잃어버렸다면 그것은 더 이상 관계가 쉽지 않죠. 그런 여자들이 사는 것은 오직 동물적 목숨만 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이런 악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이것은 단순히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만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짓밟았다는 것입니다. 신성 모독의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의 나라에서 저질러도 큰 죄인데,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안에서 저지른 죄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교회도 얼마나 입에도 담지 못하는 수많은 수치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목회자의 음란죄, 교회 안에서 입에도 담을 수 없는 음란의 죄들, 명예욕, 탐욕, 다 신앙이 종교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제가 벌써 수십 년 전에도 드라마 보면 맨날 음란죄 저지르고 남편 따로 애인 따로 이런 것만 했었는데, 그러니 지금은 TV에서 뭐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지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결혼하지 않고 애를 낳아야 된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애를 낳는다고 하는군요. 더 이상 가정이 존재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프랑스는 반드시 마지막 때 어느 한 나라와 합병이 될 것입니다. 그 일을 벌써 시작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가정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할머니와 사는 나라잖아요. 유럽에서 유일하게 프랑스만 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냥 애만 낳으면 누구와 자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구는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정책도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런 조짐들을 보고 있습니다.

혼외정사를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깁니다. 또, 결혼 전에도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바벨론의 악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 명심해야 합니다. 애너지를 이성애에 빼앗기면 큰일 나는 것입니다. 인생 망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 한 사람도 고등학교 때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일 년 살다가 이혼합니다. 여자는 술집 다니고 그

리고 애는 남자가 키우면서 겨우 노동하면서 그러니 그 애가 어떤 애가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성에 에너지를 빼앗기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탐욕과 성적인 욕구들을 성령으로 살면서 죽여야 합니다. 그냥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로 벌써 청년 때 결혼하기 전에 이성을 마음에 두지 마세요. 성령으로 살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이 음란하고 패역한 세대에 절대로 물들면 안 됩니다.

마지막 8절입니다.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가난한 사람이 돈을 꾸고 내가 반드시 돈을 갚겠다는 보증으로 걸옷을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빌렸는데 못 갚아서 벌금으로 포도주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것을 맡은 자가 종교행사에 그것을 깔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녁이 되면 걸옷을 돌려줘야 되는 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는 그 옷을 이불로 써야 되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얼어 죽는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빚을 제대로 못 갚아서 자기가 마시는, 이스라엘의 포도주라는 것은 음료이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벌금으로 받았습시다. 그런데 오늘 종교행사 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최소한의 인정과 긍휼이 없는 잔인한 착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주 최소한의 생명을 연장시켜야 되는 그런 인정도 이런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군다나 종교라는 행위에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행사에 써야 되기 때문에 나는 걸옷을 저녁에 안 돌려줘도 좋다. 나는 종교행사에서 그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괜찮다." 그러니 종교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런 자기의 모든 부정한 삶이나, 정당하지 못한 삶을 종교라는 것으로 다 정당방위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대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했지만, 어떻게 벌었느냐보다는 얼마를 냈느냐 이것이 교회는 중요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번 돈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하나님을 위해서 포기하는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지는 산 제사인 것입니다. 그것을 받은 목회자는 기쁨으로 그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고리대금업, PC방, 술 판돈, 러브 호텔, 남의 영혼을 죽이면서 번 돈, 그런 돈을 하나님께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디모데 전서는 더러운 이를 취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는 어떤 헌금을 드리느냐가 굉장히 민감한 것입니다. 그렇게 부정한 돈을 드릴 때 교회는 타락하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제가 처음 목회하고 나서 첫해에 참치 전문집을 차린 집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술 팔잖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 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에게 심방을 드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나갈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가 심방을 왜 드립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야, 가서 신나게 굿 한 번 하고 와라." 그리고 굿 한 번 하고 나서 그 사람 나갔습시다. 절대로 부정한 돈을 드리면 안 됩니다. 노름해서 딴 돈, 교회 안에 거룩한 물질, 헌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부정한 돈을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맺은 말

그러니 이스라엘은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썩은 것입니다. 완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죄는 사실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 종족을 향해서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인신매매, 성적 타락, 착취, 그런데 심지어 이런 죄들이 종교의 열정으로 가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반드시 종교라는 것은 자기 악에 대한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악하게 돈 벌었지만 십일조 드렸으니까.” “아, 예배드렸으니까.” “아, 기도했으니까.” 이렇게 자기 악을 보상받는 심리로 종교는 반드시 사용됩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이 종교가 보상심리로 갈 때 더 열심을 낸다는 사실입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말했지만, 바벨론으로 살면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귀신이 반드시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통해서 귀신이 여러분에게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 그런 사람은 속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종교로 살면 누가 속삭이느냐? 음녀가 속삭입니다. 너무나 자명하고 뚜렷한 진리도 음녀의 속삭임에 들어간 사람은 못 알아 듣습니다. 귀를 막아 버리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는 소리를 못 듣습니다.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니 종교로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세상으로 살지 말아야 합니다. 매일 거짓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이 열방 교회는 어떤 곳이나?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그래서 이 공동체에 누구라도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믿음입니다. 오늘 강력하게 기도하면서 다시 한 번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내 안에 바벨론의 모든 욕구들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음녀의 모든 속삭임을 산산이 부셔버리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드디어 진리가 들리기 시작해야 합니다.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이 거울을 비춘 것처럼 내 영을 완전히 x-ray해 버려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사단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어둠만 보이는 것입니다. 은혜로 살면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데 그런데 그 안이 어두우니까 전부 어둠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해도 소용없고 그러니 계속 바벨론으로 살면 나타나는 현상은 절망입니다.

우리 사모님이 요즘 은혜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저께 저한테 이러는 것입니다. “우리 애들처럼 아름다운 애들이 어디에 있어.”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돈을 거기에 놔도 애들이 그 돈을 건드리지를 않아.” 저는 속으로 “당연한 걸 가지고 이야기하냐?” 그런데 무엇을 봐도 다 아름답게 보는 것입니다. 옷 산다고 오랜만에 돈 달라고 해서 몇만 원 줬는데 그것 가지고 애들이 기뻐하는 것을 가지고 “요새 애들이 그런 애들이 어디에 있어.” 이러면서 저한테 애들을 칭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만 원 주는 게 어디야.” 속으로... 그런데 자꾸만 은혜 속으로 들어가니까 자꾸만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자꾸만 어둠을 보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러는 것은 자꾸만 세상을 통해서 원수의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실지로 OO와 옛날에 사역할 때 요즘은 그런 사역 잘하지 않지만, 귀에 붙어 있는 귀신들 정말 많이 축사했습니다. 귀에 붙어서 계속 속삭이는 귀신들, 그래서 자꾸만 환청을 듣는 것입니다. 요즘은 귀신도 머리가 좋아서 귀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다 개네들도 무선으

로 합니다. 진짜입니다. 자꾸만 이 소리를 들으면 안 됩니다. 종교로 살면 자꾸만 음녀가 속삭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나를 비추는 일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편한 것입니다. 어려울 수가 없습니다. 이제 진짜 어려운 것은 무엇이나? “네가 알아서 살아.”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또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인 것이고, 여러분들 두 살 된 아이들, 도시에 풀어놓으면 한 시간에 3km를 간답니다. 그런데 들판에 놔두면 아무데도 못간다고 합니다. 이것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니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하나님의 영이 나를 다스리면 우리는 아무데나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도

하나님, 오늘 우리 공동체로부터 바벨론이 분리되게 하옵소서. 이 아모스가 주는 이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이 아모스를 통해서 종교의 영이 박살나게 하옵소서. 바벨론이 분리되게 하소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리게 하소서.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를 세우는 중요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말하지 않고는 행하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비밀 없이 교제할 수 있는 거룩한 임재로 들어가게 하소서. 예수의 피! 더러운 종교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바벨론은 떠나갈지어다. 소유욕과 안정욕과 쾌락욕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제가 안수할 것인데, 이 아모스를 통해서 안수할 때마다 이 아모스의 전체적인 흐름이 항상 여러분에게 기쁨 부으심으로 흘러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보다 아모스는 상당히 위력적인 예언서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예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을 여는 것입니다. 아모스의 전체적인 흐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라. 야훼께서 말씀하시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창조의 질서의 핵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셨으니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 이 위력적인 창조의 질서의 핵을 오늘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기갈,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또한, 다윗이 장막이 세워지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들이 기쁨 부으심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영광을 부어주시고 바벨론, 종교의 영들이 완전히 삭제되게 하소서.

이 아모스를 듣는 동안 바벨론과 종교의 영이 확실하게 제압되어야 합니다. 요한일서의 보혈의 능력이 아모스와 접목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담임 목사가 가진 어떤 의지가 아닙니다. 스가랴 5장 5절의 예언처럼 이제 마지막 때 등장하는 영광스런 교회는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바벨론과 분리되지 않고는 우리는 적그리스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정말 바벨론은 위험한 것입니다. 정말 악한 것입니다.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하라. 미가서 말

했듯이 바벨론으로부터 나와라. 종교의 도시로부터 나와라. 하나님, 이 시간 보혈의 능력을 덮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에 뿌려진, 그 지성소에 뿌려진 그 강력한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흘러들어오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 바벨론이 분리되게 하시고 종교의 영이 분리되게 하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여러분 안에 있는 보혈이 지금도 운행되고 있음을 믿으면 됩니다. 예수의 피가 돌면서 여러분 안에 모든 바벨론의 묶임이 이 시간도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운행되고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말씀이 검이 되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어둠을 능지처참 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나를 통치하시면서 그 빛으로 모든 어둠을 내쫓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셨으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았으며 우리는 그것으로 살게 하시니 오늘도 이 바벨론이, 종교의 영이 분리되게 하소서. 분리되게 하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이 더러운 바벨론은 떠나갈지어다. 바벨론이 주는 더러운 음란 탐욕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더 이상 공동체 안에 머물 수 없어.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 더러운 음란의 영들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세상의 영 떠나갈지어다. 더러운 탐욕이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아모스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에 보혈이 실체화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뿌려진 그 보혈이 이 시간도 운행되고 있음을 보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이 보혈이 운행되며 모든 바벨론의 뿌리들이 제거되게 하소서. 바벨론이 주는 음란과 세상의 영과 그리고 모든 탐욕이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가라, 너희는 여기 못 있어, 모든 음란의 역사들, 세상 끊어버려라.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심판의 저주를 예수가 다 해결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증거는 보혈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어떤 우리의 가문의 흐름, 어떤 한반도의 흐름, 어떤 내 영적인 흐름, 보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믿어야 합니다. 보혈이면 끝나는 것입니다. 보혈을 믿으면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이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운행되게 하소서. 이 보혈의 능력이 완전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가문의 모든 음란, 가문의 잡신, 가문의 세상의 영, 불신, 모든 것들이 완전히 예수의 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마침내 스가랴 5장 5절의 말씀이 응하게 하시옵소서. 공동체에서 바벨론이 완전히 분리되게 하시옵소서. 단 0.0 이래 이유라도 우리는 바벨론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영광스런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그 거룩한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이고 당신만 있으면 됩니다. 당신의 존귀를 우리는 믿습니다. 그 존귀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예수의 피를 뿌렸으며 이 존귀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셨으며, 그 존귀를 인정하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을 두셨사오니 우리는 성전이며 하나님의 처소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 영광과 거룩한 임재를 오늘도 가감없이 제한 없이 모두가 활성화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보게 하여주옵소서. 결코 원수들은, 세상은, 바벨론은 우리를 다스릴 수 없으며 우리는 만질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자녀들의 영광, 하나님

의 자녀의 영광, 그 성전 그 처소의 영광이 이 시간 움직여라.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불바람이 날려버려라.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스런 나라를 항상 갈망하고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당신은 more than enough, 당신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당신이 있으면 다 있는 것이고 당신이 없으면 다 있어도 다 없는 것인데, 하나님 당신으로만 살게 하시옵소서. 열방의 이 모든 거룩한 자들로 인하여 이 말세에 승리하는 것을 보게 하시옵소서. 제한 없이, 제한 없이 파격적으로 이 시간도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넉넉히 이기게 하여주옵소서.